소리문화전당 기획공연·전시 2건 '올 국고 지원사업' 선정

공연 - '스탠딩 B구역' · 전시 -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
각각 3200만원 · 3250만원 국고 보조금 지원받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올해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공모한 2023년 국고 지원사업 공연·전시 부문에서 2건이 선정돼 총 6,45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7일 전당에 따르면 공연 부문에서 올해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프탑 시리즈 No.1 '스탠딩 B구역'이 3,200만원, 전시 부문은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을 주제로 한 전시가 3,250만 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먼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중 문예회관 기획, 제작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루프탑 시리즈 No.1 '스탠딩 B구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KOSAC 페스타 2023 일환으로 오는 9월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또 루프탑 시리즈 첫 번째 테마인 '스탠딩 B-구역'은 전당의 기획력 및 제작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전당 내 비활성화 된 전시장 야외공간인 옥상을 B구역으로 설정, 개방된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스토리텔링형 콘서트다.

이를 위해 전당은 공모를 통해 감성, 개성, 실력 3박자를 갖춘 떠오르는 지역 뮤지션 5개팀을 선정해 흥미로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어 전시 부문에서 선정된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는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인 '한글'과 민족시인 '윤동주'를 소재로 한 전시로 한글단어에 예술적 창의성을 결합, 한글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기획전시에서는 서비나미술관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히는 윤동주의 시 124편을 KISTI 및 윤동주기념사업회의 협력으로 빅 데이터로 분석, 윤동주가 자주 사용했던 시어들을 추출하고, 10명의 작가들이 시어들을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현대적인 기법 및 매체를 이용해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장은성 기자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는 지난 5일 국립전주박물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과 '세계유산 백제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의 백제 문화 집중 조명

국립전주박물관-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 아카데미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은 4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전북의 백제 문화를 알리는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는 지난 5일 열린 국립전주박물관과 (재)백제세계유산센터(센터장 이귀영)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두 기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 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백제세계유산의 공동 전시·연구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등에 걸쳐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는 무료로 운영되며, 강의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과 현장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하다.

강사진은 권오영(서울대), 박순발(충남대), 정재윤(공주대), 신광섭(백제문화제재단), 김주성(전 전주교육대), 최완규(전 원광대), 김병남(전북대) 등 백제문화유산 전문가가 총망라돼 전북의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집중 조명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백제문화유산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백제역사유적 지구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을 한층 더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 소재 영화제작 3억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영화 산업 부흥에 기여하고 태권도에 대한 긍정 인식 확대 등을 위해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한국 영화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정체기를 겪다 작년 범죄도시 2가 1,200만명의 관객 수를 보이며 회복세를 찾아갔다. 그러나 올 1월부터 3월까지 한국 영화는 상영편수에서는 1위인데 반해 관객 수와 관객 점유율은 각각 29.2%와 30.3%로 일본, 미국 영화에 이어 3위에 그쳤다. **한국 영화 점유율 등 통계: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참조

재단은 '2023 태권도 소재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 영화를 되살릴 골든타임에 맞춰 영화 제작지원은 물론 한국 영화 산업 진흥과 태권도 문화 확산 등 K-컬처 저변 확대를 꾀한다. 또한, 태권도를 소재로 스토리 등을 구성해 영화를 제작, 상영함으로 태권도를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번 영화제작 지원 사업의 접수는 5월 4일 오후 1시까지로 재단은 서류 평가와 작품 기획 및 의지, 제작 계획 및 능력, 작품 활용 계획 등의 발표 평가, 종합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 대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5월 중 대상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6월부터 제작에 착수한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올해 태권도 소재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태권도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생산·보급해 태권도를 K-콘텐츠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며 "우수한 태권도 소재 영화가 제작돼 태권도가 더욱 사랑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화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 무장기포지 공동 우물 동학농민군 우물터 추정

군, 문화재 발굴조사 나서

고창군이 무장기포지(공음면 구수마을)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터 발굴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고창 무장기포지는 음력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포고문을 낭독하고 1차 동학농민혁명을 시작한 역사적 현장이다.

지역적 봉기에서 전국적인 농민혁명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창군은 무장기포지의 장소성에 큰 의미를 두고, 2015년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수구막이 관련 나무, 추정 우물 등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문헌 기록과 구수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유구와 유물이 발굴되는 성과를 거뒀다.

발굴된 유구와 유물로는 동학농민군의 훈련장과 숙영지에서 사용한 당시의 공동 우물, 주거지, 옹기를 통해 저장시설의 역할을 한 수혈, 불을 땐 흔적인 소성 유구, 상평통보, 자기류, 등고선을 따라 조성된 구와 축대 등으로 조선시대 후기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특히,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공동 우물은 무장기포 당시 동학농민군이 마셨던 우물터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무장기포 역사공원 건립시 우물의 복원과 더불어 발굴된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전시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만 전해진 많은 유구를 실제로 확인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적극 반영해 국내·외에 무장기포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5월 25일까지 '소리천사'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 축제를 이끌어갈 자원활동가 '소리천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축제 기간 동안 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사전 교육 및 교육에도 참여해야 한다.

접수는 소리축제 공식홈페이지 내 '소리천사' 전용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25일까지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6월 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뉴시스

'지금 만나는 복(福)'

19~24일 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최광석 개인전

최광석 개인전 '지금 만나는 복(福)'이 19~24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혁필화(革筆畵)'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혁필화는 가죽에 물감을 찍어 글자를 쓰거나 형상을 그리는 전통 미술로써 민화에 포함된다.

'지금 만나는 복(福)'에서 작가는 '복(福)'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다양한 문자 중 '복'을 택한 이유는 그가 민화의 친근하고 소박한 정격에 착안해 인간의 '치유'를 꿈꿔왔기 때문이다.

한편 최광석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의 네 번째 개인전이다.

/장은성 기자